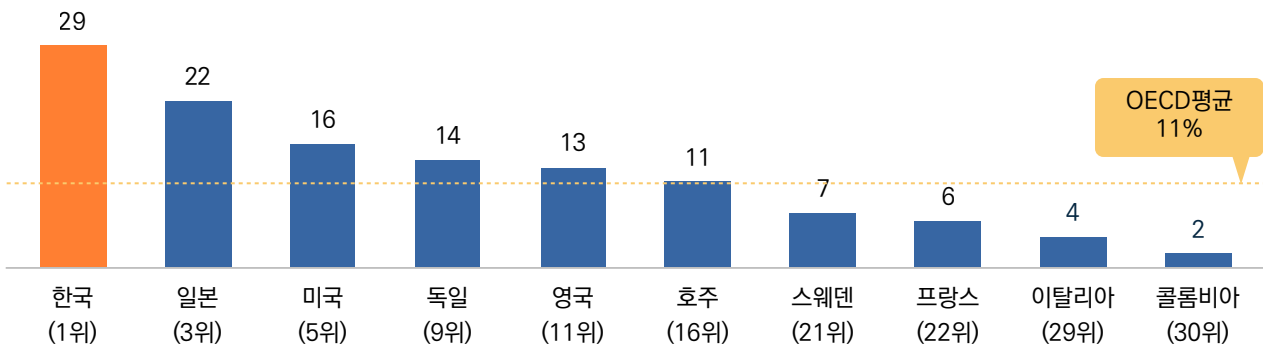




[성별 임금 격차: OECD국 비교] 한국,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가장 커!

-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?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‘성인지 통계’ 내용을 바탕으로 OECD국과 비교해 살펴본다.
-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29%로 OECD 평균(11%)의 약 3배 수준이었다.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29%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다.
- OECD 30개국 중 콜롬비아가 2%로 격차가 가장 작았고, 미국 16%, 일본 22% 수준이었다. 한국은 조사 대상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.

[그림]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 (2023, 15~64세 인구, OECD 30개국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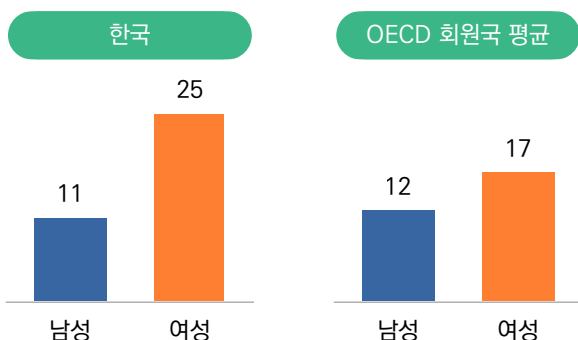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, 2025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성인지 통계 기획보도자료 발표, 2025.08.29.

한국 여성, 저임금 근로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!

- 이번에는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비교해 본다.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%로 남성(11%)의 2배 이상이었다. OECD 여성 평균(17%)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.
- OECD 회원국의 경우 여성 17%, 남성 12%로 격차가 5%p에 불과하지만, 한국은 14%p 차이를 보여 성별 간 저임금 근로자 비율 격차가 OECD 평균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저임금 근로자* 비율 (한국 vs OECD 회원국, 2023년 기준, %)



※출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, 2025년 양성평등주간 맞아 성인지 통계 기획보도자료 발표, 2025.08.29.

*저임금 근로자 기준 : 중위임금의 2/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를 말함. 즉, 전체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, 중위값(가운데 값)의 2/3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임.